



통권 57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7. 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진: 이희영〉

지난 7월 4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142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이날 목요집회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24년째를 맞아

오랫동안 간혀 있는 장기복역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33세) 씨가 함께해

동티모르 독립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젠 어머니들을 쉬게 하자!

“부당한 불심검문에 따르지 않았다하여 무고한 시민을 강제연행, 집단 폭행하는 경찰관 직무집행 남용이 있는 한, 양심수로 재판받고 있는 학우의 모습을 보고자 법원에 찾아왔던 학생들을 불법집회라며 미구잡이로 강제연행, 구속시키는 인권유린이 있는 한, 살빛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달 품삯 40,000원으로 노예노동이 강제되고 있는 한,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던 노동상담 목회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잡아가두고 있는 한, 그리고 민주와 통일을 말하고 정의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잇달아 무더기로 끌려가고 있는 한, 이땅에서 변화와 개혁 더구나 세계화 외침은 한낱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탑골공원 앞 민가협 목요집회. 사회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격했고 비소리보다 더 크게 절박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은 반인권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옷이 젖고 있는 것도 잊은 채 주먹을 움켜쥐고 함께 분노하고 있었다.

6월 마지막 목요일, 93년 9월 23일 첫 외침을 시작해서 141번째를 맞이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이렇게 장대비가 퍼붓고 있는 가운데서 열렸다. 양심수 가족들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뜩이나 불편했다. 1시간 남짓한 집회중에도 여러번 앉았다 섰다할 정도로 몸이 성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갇힌 가족을 기다리며 가슴에 한이 맺혀 병들었거나,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에 항의하다 공권력에 짓밟혔거나 밤낮없이 안가는데 없이 뛰어다니느라 온몸에 멍이 들어서이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주름살도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들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의지는 자식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결코 꺾일 수 없었다. 어제는 학생들 강제연행에 항의하여 경찰서에 갔고, 오늘은 구치소로 양심수 면회를 가고, 내일은 잇단 학생 무더기 구속에 경찰청, 내무부를 항의방문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법정으로 양심수 재판 방청을 갈 것이다. 어머니들은 단지 내자식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데 분노한 것이며 술한 인권침해로 얼룩진 이 사회의 반민주성에 분노하고, 자식들이 외치다 감옥간 이땅의 평화와 통일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회정의, 생존권 보장 외침의 정당성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미 민가협 어머니들은 한집안을 지키는 어머니일뿐 아니라, 불의에 맞서 이땅을 건강하게 키워낼 조국의 어머니들이다.

그러나 이젠 이 조국의 어머니들을 쉬게해야 한다. 어머니들이 마음 편히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가협 목요집회가 끝날 수 있게 억압의 장치와 녹슨 빗장이 풀려야 한다. 30년동안 갇혀있는 아들의 석방을 위해 80노구를 이끌고 성남에서 탑골공원까지 나오시는 신인영 씨의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동생 나오기를 기다리며 먼 남쪽하늘에서 눈길줄 거두지 못하는 34년째 복역중인 양희철 씨의 누님도 동생을 맞아야 하고 38년 갇혀있는 윤용기 씨를 삼팔선처럼 느끼며 수십번 이사다니며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그 가족들도, 그리고 39년 갇혀있는 우용각 씨를 비롯한 장기복역양심수 가족들도 이웃의 눈총과 수십

년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아들 풀려나길 열심히 기도하며 강인한 정신력으로 암과 투병하고 있는 박노해 시인 어머니, 구미유학생 사건의 김성만 씨 어머니, 민예전 사건의 이경섭 씨, 심상득 씨 어머니,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황인오, 황인욱 어머니도 자식들이 풀려나길 기다리며 싸우다 얻은 병으로 고생하신다. 그뿐인가, 경찰서로 안기부로 법무부로 교도소로 국회로 법원으로 목요집회로 쉴 틈없이 다니느라 무릎관절을 상했거나 팔과 다리, 머리를 다치고 뼈속 깊이 상처를 입은, 이미 풀려나왔지만 여전히 양심수 어머니로 인권의 상징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쉬게 해야 한다. 바로 양심수 없는 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문민정권에서는 양심수는 있을 수 없다'는 정권의 최고 책임자의 말이 사실로 실현되어야 하고 특히 야당시절에 공약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공안기관들이 지렛대로 사용하는 남북긴장, 북을 이롭게 했다는 엉뚱한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도 취임 초 말한 '어떠한 동맹국보다 민족이익이 앞선다'고 한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해야 한다. 95년 8월 세계최장기수가 석방조치되었을 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비전향장기수 등 공안관계 석방조치에 대해 79.9%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대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결의해야 한다. 또한 제15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7월 4일은 분단 뒤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한지 24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표시켰다. 늦었지만 이 합의서를 인준하여 정부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안당국의 틀에 박힌 잘못된 타성과 시각에 일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양심수 무더기 구속사태는 4, 5월에 이어 6월에도 8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몇 년전 재학중 학생운동을 하였으나 이제 군에 입대했거나 직장에 들어가 생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 학생운동했다는 것만으로 불순세력으로 몰아 잡아들이는 그 자체가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된단 말인가. 지난 총선때 여야 정당들은 민족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서로 끌어들이며 개혁주도 세력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았던가.

여수에서 올라와 처음으로 목요집회에 참석한 인하대 이경훈 학생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끔찍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아픔과 왈칵 치미는 감정때문에 사체 발표를 맺지 못하였다. 그 아픔은 바로 지금 갇혀 있는 400여 양심수 가족 모두의 심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여 가족들을 쉬게하라

담장 안에 묶인 시인의 노래

편집부

달마다 양심수의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서 드는 착잡한 생각이 있다. 그들이 너무 젊다는 사실이다. 혹은 너무 젊은 나이에 구속되어 너무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싱그런 웃음위에 덧씌워진 '적국으로의 잠입탈출'이니 '찬양고무'니 하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의 젊음을 송두리째 앗아갈 10년, 15년, 무기형의 선고가 너무 잔인하기만 하다. 단지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 그들의 인생에 대해 이 나라의 법과 정권은 그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일까. 박영희 시인(34세)의 동생 박철완 씨(30세)를 만나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남 무안군 남악리 소년 박영희의 서울행

“원종일/ 낫으로 마당을 파다/ 손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날이었다/ 어머니의 고쟁이처럼 지저분한/ 가난을 갈가리 찢어/ 없애버릴 것이라고/ 용산행 열차를 탔던 날이었다.” (그의 시 '고향을 떠난 날' 중에서)

박영희 시인은 전남 무안군 작은 마을에서 5남2녀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당당히 농촌의 어려운 살림과 많은 형제들로 미루어볼때 그가 느꼈던 절망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짐작을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중학교 2학년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그는 뛰어난 성적의 모범생이었으며 풍부한 독서는 그를 생각이 깊은 소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고향에서 생활은,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과 더 나은 배움에 욕구를 채워

줄 수가 없었다. 열다섯 어린 나이로 서울에 올라와 신문배달, 웨이터, 구두닦이, 공장생활 등 안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생활속에서도 그는 정기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상으로 폭넓은 분야의 책을 두루 읽어나갔다. 이 시기의 경험과 사색은 그의 작품 곳곳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동생 박철완 씨에게도 박영희 시인은 깊은 영향을 끼쳤다. “가끔씩 만나볼 수밖에 없는 형이었지만 형의 생각, 이야기들은 저에게는 언제나 새롭고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한적한 시골 소년이었던 제가 김민기니 양희은이니 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알고, 존 바에즈 등의 노래를 부르며 월남전 당시 미국의 반전운동을 알게된 것은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형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 그날의 꽃잎처럼(해방시 동인집, 1986년)」「조카의 하늘(1987년)」「해뜨는 검은땅(1990년)」등의 시집을 내기도 했던 박영희 시인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탄광도시 사북을 향해 그의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된다. 노동자, 농민의 삶의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던 그의 시에는 이제 탄광 광부들의 막장 안에서의 삶까지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군가/ 매표를 했다 반환한 듯한/ 구겨진 버스표를 손에 쥐고/ 강원도 땅을 찾아가면서/ 짐작할 수 있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찢겨져버린/ 너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얼 요구하는지/ ... / 너의 이름은 광부였다/ 스물일곱살의 노동자였다.”

(그의 시 '전보를 받고' 중에서)

못다 쓴 서사시- 일제시대 '탄광징용사'

사복에서 그 자신이 직접 광부생활을 하기도 한 박영희 시인은 일제시대 우리 동포들의 탄광징용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한 편의 서사시로 담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였다. 실제로 일본에까지 건너가 여러번 그 징용의 현장을 생생하게 둘러보기도 하였다. "열아홉 나이로/ 이 고개 못넘고/ 검은 땅에서 피 쏟으며 죽었다더니/ 아, 그것이/ 니뿐 제국주의 징용병/ 우리 아버지였네" (그의 시 '통리교개' 중에서)

그에게는 이 짧은 시의 호흡을 더욱더 길게 이어줄 더 많은 자료와 생생한 현장이 절실히 필요했다. 몇 차례의 일본 방문만으로는 아쉽기만 했다. 일제시대에 탄광으로 끌려가 참혹한 강제노동을 해야만 했던 조선 노동자들은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많았을 것이다. 또다른 곳의 현장을 보고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을 거쳐 이북 방문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고 만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그 즈음은 '남북 합의서' 발표를 앞두고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어느때보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고양되어가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채 열흘이 되지 않는, 그나마 일정이 뜻대로 맞지 않아 그 스스로가 앞당겨 돌아오고만 짧은 여행으로 박영희 시인이 치러야만 했던 댓가는 엄청났다. 귀국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안기부에 끌려갔던 그는 그곳에서 20일이 훨씬 넘게 심한 조사를 받았다. 그의 아내, 누나, 동생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시인의 순수한 열정을 '적국으로부터의 잠입'과 '기밀탐지행위'로 몰고가려는 집요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이 속에서 그의 정신은 심하게 황폐해져 갔다.

그는 법정에서 안기부 수사의 가혹함과, 자신의 방북동기는 순수한 시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



호르는 시간이 아까워 어머니를 다시 안아보니
 암상한 뼈뿐이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진다. 자식이 보고파서
 새벽밥을 지어잡수시고 달려오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을 강변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적국으로부터 침투한' 갓 서른살의 박영희 시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하였고, 그의 변호사는 울음섞인 최후변론을 하였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겪어온 시인 앞에 놓인 또다른 엄청난 운명에 법정 안은 숙연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에게는 징역 15년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민족의 공통된 자산이 될 서사시 한 편을 쓰고 싶다는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이나라의 사법부와 정권은 '국가보안'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그처럼 엄청난 형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의 시는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감옥에서 그와 함께 묶여 있다.

그의 가족들... 어머니, 딸 서로

대전, 안동 교도소를 거쳐 박영희 시인은 지금 전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잦은 이감으로 보아 그의 징역살이의 어려움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그는 가족들과 친지, 아내, 그리고 동생 박철완 씨에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지난달 면회오신 어머니를 뵈고 박영희 시인은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더 작아지시고 더 아워신 어머니의 어깨가 면회실 안으로 들어오신다. 만나자마자 어머니께서는 우신다. 언제 나오겠느냐며. 나는 우시는 어머니를 안은채 등을 쓸어본다. 머리카락도 쓸어본다.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어낸다. 그러다보니 나도 눈물이 난다... 시간은 자주 흐른다.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 어머니를 다시 안아보니 앙상한 뼈뿐이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진다. 자식이 보고파서 새벽밥을 지어잡수시고 달려오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한글도 모르시고 숫자도 모르시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오셨으리라. 바깥에 살때 가르쳐드려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나만 눈뜬 것이 미안하고 또 가슴아프다. 내가 지향하는 문학은 한이다. 한글 한 자 모르는 내 어머니의 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96년 6월 16일 자 편지 중에서)

박영희 시인은 딸 서로(5세)가 태어난지 보름 만에 안기부로 끌려갔다. 서로가 자라나 말을 배우고 걷고 하는 그 모든 나날 동안 아빠는 감옥 안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여야만 했다. “신문을 펼친다/ 오늘의 날씨를 본다/ 오늘도 어제처럼 너 사는 곳이 더 춥다/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 / 어제처럼 또 가슴이 아프다/ 너 사는 곳보다 나 사는 곳이 더 따뜻해서다/ 너 때문이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쓴 시 ‘신문’)

사복 탄광 시절 그는 서로 엄마를 만나 결혼하였다. 그가 구속된 이후 남은 가족들은 좁은 탄광 동네에서 살 수 없었다. 서로와 서로 엄마, 외갓집 식구들은 사복을 떠나 지금은 대구에서 살고 있다. (대구까지의 방문 일정이 여의치 않아 서로와 서로 엄마를 만나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하다)

“형은 고집이 세고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고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몹시 여린 사람인 것도 같아요.” 그의 마음이 여린

탓인지 세상사의 온갖 곡절을 겪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탓인지 박영희 시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십대의 방황하던 시절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의리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그때의 구두닦이 형님들, 동생들, 다방 누님들은 여전히 박영희 시인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요즘도 전주까지의 머나먼 길을 박영희 시인을 만나러 온다고 한다. 박영희 시인이 늘 “이해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동생 박철완 씨는 오랫동안 인천에서 공장노동자로 지내면서 노동조합운동에도 활발히 참가하였다. 그로 인해 몇해 전에 해고당한 이후 지금은 자그마한 건축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감옥안에 있는 형을 돕고 있다. 박철완 씨는 그 자신이 양심수 가족이면서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박영희 시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많은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체가 구속된 만큼이나 그의 시들, 소설들 역시 그 안에서 묶여 있다.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시인의 노래는 그 혼자서 부르기에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그와 함께 시인의 노래도 푸르른 이땅의 하늘 아래서 하루빨리 마음껏 울려 퍼지길 기대해본다.

동 화

동화책을 두 권 샀다.

두 권 사서 한 권을 펼치니

동화는 읽는게 아니다

이야기보다 그림이 더 아름다워서다

새삼스럽게 이걸 발견한 나는

괜히 기뻐진다

박하향처럼 마음이 환해진다

(다섯살난 딸 서로를 생각하면서 쓴 시)

김해성 목사를 석방하라

▶
지난 6월 3일 출입국 관리소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쪽 출입구를 막고 검문을 하며 네팔노동자 로잔 구릉씨 부부를 봉고차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까운 인하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상담소에 상담을 하려고 오던 길이었습니니다. 이날 월요일은 상담소 직원들이 쉬는 날이었는데 함께 연행되었다가 산재를 당해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임이 확인되어 풀려난 아말 바하들씨가 두 부부의 강제연행 사실을 상담소 소장인 김해성 목사님께 연락을 취해 김목사님과 사무국장인 양혜우 집사가 달려와 이들 부부를 신고 가려는 봉고차를 막았습니다.

봉고차를 막은 채 약 6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던 중 김목사님이 "이들 부부는 병원에 갔다오는 중이어서 몸도 불편하고 밥도 먹지 않았으니 상태를 안정시키고 밥도 먹여 오늘 밤 내가 직접 출입국 관리소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목사님의 제안을 거절한 채 500여명의 경찰병력과 견인차를 동원해 강제연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김해성 목사님과 상담소 직원들은 봉고차 밑으로 들어가 "이럴 수는 없다"며 온 몸으로 강제연행을 저지하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상담소 여직원이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김해성 목사는 머리를 다친 상태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6월 7일 김목사님의 구속과 경찰의 폭력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직원들과 김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산자교회 교우들이 성남중부경찰서에 면회를 요청하자 이들을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곤봉으로 구타하며 대열 선두에 있었던 양혜우 사무국장을 납치하듯 끌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정말 문민정부니,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10만명이 넘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구멍난 인력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 찢리고 머리가 다치고 하는 산업재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죽어라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기쁨과 슬픔,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국땅에 와서 억울하게 당하고 다치고 죽고 하면서 쌓이는 억울한 호소를 누가 들어주어야 합니까? 이들의 가슴깊이 쌓인 한은 누가 풀어주어야 합니까? 이들의 억울한 호소를 조금이나 들어주고자 하는 성직자와 직원들을 구속하는 현 정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보며 정말 안타깝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된 김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감옥에서도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간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바라는 한국국민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글은 성남 산자교회 목사이자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인 김해성 목사가 환자인 외국인 노동자 부부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강제 연행하는 것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자 어머니 안월순 님이 지난 6월 13일 목요일에 나와 사례발표를 한 내용이다.

서러운 내 꿈이여, 나는 필부를 꿈꾸적 없다

편집부

고백

나는 두서너 가지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며 내가 많이 설했다는 사실이다. 잔인한 고문속에서도, 수십년간의 혹독한 감옥생활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선생님들을 뵈고 나면 맘이 넓어지곤 한다. '사람을 몇 십년 가두어 두면 죽거나 미치게 정상일텐데, 멀쩡한 걸 보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는 말을 들으며 긴 세월을 독하게(?) 버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소가 부드럽고 포근한 선생님들을 뵈고 오면 한 달간 내 맘이 환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선생님들께 많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속은 무르고 걸만 단단하다.

내가 고백하고 싶은 일들을 꼽으며 전주 고백교회를 향했다. 전봉준 생가 뒤쪽 대숲에서 구한 대나무로 십자가를 세운 교회. 가로 놓여진 대나무엔 철사줄이 매어져 있었다. 분단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고난의 삶을 상징하는 것인지.

10주년을 맞은 고백교회는 '양심수 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 여러 양심수 가족의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한 많은 손님들의 소개. 전직 국회의원에서부터 전대협 동우회 회장까지 각기 쟁쟁한(?) 사람들의 소개가 끝날 때마다 손바닥에 불이 나게 박수를 치고 있을 때였다.



한 장기수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드셨다.

"목사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부모도 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 인심아닙니까? 그런데 갈 데 없고 부담스런 저와 같은 늙은이를 3년째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는 문병학 선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습니다."

쑥스러움 때문인지 얼굴이 빨개진, 경충하게 키가 큰 남자가 뜨악하게 일어나 이쪽 저쪽에 인사를 하고 얼른 제자리에 앉는다. 박수. 가장 긴 박수가 오래도록 고백교회를, 우리들의 마음을 물결쳐 다녔다.

당돌한 열여섯의 청년

"할아버지이!"

아파트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던 문병학님의 둘째 아들 성광이가 반가워 부르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 선생님께 안긴다.

"오오, 그래. 우리 성광이가 잘 놀고 있었어?"

눈에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고 전창기 선생님(79세)이 성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참 보기 좋다. 전창기 선생님은 남으로 내려 오실 때, '아이들이 요 또래여서 그런지 애들이 그렇게 예뻐수가 없다' 하신다.

선생님은 1918년 4월 10일 생으로 충남 천안에서 나셨다. 선생님은 전봉준 장군과 같은 천안 전씨라 말씀하신다.

'밥은 굶어도 책은 보아야 하는' 유학자였던 할

아버지는 집안 형편에는 통 관심이 없으셨다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동네에 서당을 차려 애들 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어떻냐는 권고를 '훈장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며 단칼에 물리치신 단호한 유학자였다. 가정형편으로 인해 선생님은 천안 공립보통학교를 다니고도 졸업장을 타지 못하셨다. 밀린 월사금을 가져와야 졸업장을 준다하며 졸업장을 끝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보통학교를 마친 후 집안을 돕기위해 노동판에 뛰어들었다. 신문 배달을 하기도 하고 운전 조수를 하기도 하며 청년기를 보낸다.

"16살때로 기억합니다. 내가 조수로 있던 운송회사 사장은 50살이 넘는 일본 퇴역장교였는데, 사람이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 일도 아닌 것을 트집삼아 마구 저를 때린 것이 분해 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서 일본인 사장을 팬 일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열여섯나이에 당돌한 행동이었지."

운전 조수일을 그만 두신 선생님은 42년, 스물여섯이 되기까지 거의 10년간 사금단지에 들어가 일을 하셨다. 부여 초전면, 입장, 천안등지에서. 그러나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용품을 만드느라 배를 뜯어가자 선생님은 줄지에 직업을 잃게 되었다. 딸아이까지 딸린 가장인 선생님에게는 당장 다른 일이 필요했다.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되는 사람은 조실 부모하고 큰아버지댁에서 지내며 제사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백부의 반대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는 파평 윤씨로 양반집안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사금단지 다니는 사람을 금전꾼이라하며 사람취급도 안하며 낮춰 보던 때입니다. 그런데 처가 '나는 꼭 전창기한테 시집가겠다'고 단식을 하며 고집을 부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20살이었고." 선생님은 거의 60년전의 그 꽃다운 신부를 생각하시는지 목소리가 더 잔잔해지셨다.



▲ 금산사 나들이. 왼쪽부터 시인 문병학 님, 큰아들 일광이, 전창기 선생님, 둘째 성광이, 부인 박성자 님. 그 웃음이 따뜻하다.

선생님은 동양의 3대 제철소중 하나가 있는 황해도 송림시로 혼자 떠나신다. 제철산업은 국책사업이었으므로 보국대로 소집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다.

"44년도 일입니다. 아내가 딸아이를 업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 때 마침 공습훈련이 있어서 모두 방공호에 들어 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고 어두컴컴한데 처와 아이를 들어 가라고 하기 위해 따로 숨어 있다 걸렸습니다. 일본놈들 참 지독하지. 방공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다 불러 운동장으로 모으더니, 똥독을 땅에 묻어 두고 사람들을 발길로 차 그 안에 빠뜨렸어요. 하아, 며칠 생 똥 냄새를 풍기며 다녔는데, 그 냄새가 좀 고약해야지"

선생님은 별반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다. 우리의 표정이 찌그러지는데도 선생님은 무덤덤하게 말씀하신다. 높고 험한 산을 넘고, 끝이 없을 것같은 깊은 계곡 밑바닥을 훑으며, 일흔 아홉의 세월을 산 선생님에게 생 똥독에 빠진 일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인가 보다.

통일의 파도에 새처럼 몸을 날려

해방이 되자 사람들은 '돈버는 거고 뭐고, 고향이 그리워' 모두 고향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선생

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기에 앞서 평양에 있는 외사촌형에게 인사차 찾아 갔다.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표현이 참 재미있다. 일이 시작된다? 단지 일본인에 대한 저항심만 있던 선생님은 외사촌형을 만나며 다른 세계를 알게 되었다는 표현인가?

외사촌형은 양정보고를 다니던 때부터 진보적 사상을 접하게 되고, 학생활동을 하다 퇴학당해 상해 복단대로 진학해 졸업한 후, 평양에 와 광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외사촌형은 ‘고향에 가면 뭐 하느냐. 여기서 같이 일을 하자’고 선생님을 설득해, 선생님은 고향으로 오지 않고 평양에 머무르게 된다.

49년까지 선생님은 만경대 분서장과 본서 과장을 지내시며 치안서에서 일을 했다. 그 기간에 선생님은 내무성 간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친일파를 척결하였으므로 ‘기본계급출신’에서 새로운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교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선생님은 55년 7월 남으로 내려 오신다. 둘로 나뉜 조국을 하나로 잇는데 ‘내 하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당시 평양에는 아내와 두명의 딸, 두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제 50이 넘었으니 늙었’을 11살배기 문자, 9살배기 종옥, 5살배기 종국, 한참 말을 배워 종알대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살배기 막내딸 영숙이를 복에 두고.

그러나 선생님은 그 다음해에 체포되어 10년 구형을 받는다. 65년 마흔여덟의 나이로 출소하신 선생님에게 세상은 차가운 벽이었다.

“아마 철교라든가 터널 중에 내 손이 안간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당장 끼니를 떼울 수가 없어 막노동판에 뛰어 들었지요. 도로공사, 철도공사 닦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일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새벽부터 나가 순번을 기다려야 겨우 일자리를 얻을 수 있

었거든요.”

원주, 충주, 서울 마장동, 양수리 등을 떠돌며 생활하시던 선생님은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형기를 마쳤음에도 사법부의 ‘재판’이 아닌 행정부의 ‘처분’으로 77년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구속되었다.

다시 감옥살이의 시작이었다,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어 89년 출소할 때까지.

‘필부를 꿈꾼 적 없다’

사회안전법이라는 법아닌 법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토록 젊은날을 ‘억울한 감옥살이’로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면 선생님은 어떠했을까, 지금 모습 이.

출소후 선생님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다. ‘감옥안에서는 욕심이 넘어서까지도 안경없이도 책을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것이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가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감옥에서 그 긴 시간을 독서로 보내던 선생님에게 책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요즘 건강상태를 묻자, 선생님은 훌쩍한 볼에 웃음을 담으시며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도 잘 자고, 책도 조금씩은 읽을 수 있습니다”고 말 씀하신다.

애기를 나누는 동안 문병학 님의 아내 박성자 님은 ‘할아버지!’하고 달려드는 둘째 성광이를 달래 데려 나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우려낸 녹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애기가 길어지자 딸 기쁨을 바른 부드러운 빵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다.

선생님이 이들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93년부터이다. ‘단칸방에서 고생하며 살던 때를 생각하면 이 좋은 아파트(2천만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우리만 사는 것은 사치다’는 생각에, 이들

부부는 3년전부터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다.

문병학님은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아보며, '전북청년문학회' 회장도 겸하고 있고, 같은 국문과를 나온 박성자님은 아이들 글짓기 선생님이로 일을 한다. 기린처럼 긴 목에, '에이구, 험한 세상 어찌 사누' 싶게, 송아지 눈망울처럼 큰 눈이 참 선해 보이는 문병학님과 결코 호들갑스레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없지만, 꼬질꼬질한 필자의 티를 보고 다음날 아침 '갈아 입고 가라'며 물내나는 새 티를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박성자님. 이들 부부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씀씀이는 넘치도록 넉넉하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셋은 모두 집을 나섰다. 각자의 일터로, 그리고 하루를 꼬박 비워두었던 서울로.

평범한 삶을 거부하셨던 선생님과匹夫이기를 거부하는 이들 부부.

혈령한 바지를 반 뺑쯤 접어 허리띠를 하신 선생님의 마른 몸속에 숨어 있는 조국통일의 열정과 갈대처럼 휘청거리리 만큼 강마른 문병학님 속에 따리를 들고 있는 조국사랑의 화두는 어떻게 닮아 있는 것일까. 아홉 살, 다섯 살배기 아들들의 초롱한 눈빛을 뒤로 하고, 돌아 보지 않은 채 거친 통일의 파도에 새처럼 몸을 날린 일흔 아홉의 전창기 선생님과 여섯 살, 다섯 살배기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선생님을 모시고 사며 시를 숫돌에 갈고 있는 서른 네 살의 문병학님 사이의 사십오년은 무엇일까.

차를 기다리며, 전날 밤 조출하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박성자님이 했던 말을 천천히 새겨본다. "힘든 일? 정말 없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힘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른 셋, 나의 근황 --1995년 3월에

불과 서너해 전에만 해도 일주일이면 대엿새는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바쁘고 바빴는데 요새는 통 약속도 뜸하다. 만나봐야 대책없는 시절,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퇴근시간 6시 종소리가 울리고, 하늘은 아직 너무 환하다. 버릇처럼 더듬어 보는 주머니는 허전하다. 텅빈 사무실에서 속 상처 깊이 박힌 서른 셋의 나이를 가만히 헤집으며, 담배를 피운다. 어둠을 기다린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지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른다. 제 엄마보다 다섯살바기 일곱이가 먼저 뛰어나와 문을 열어준다. 인사도 않고 방으로 불나게 뛰어 들어간 아이는 '포청천' 전조의 칼 붉은색과 노랑색 두 자투를 가져와 붉은색 칼을 제 아비에게 던진다. 아내에게 가방을 넘겨주고 칼을 주워들면, 아이는 제법 긴장된 표정으로 양 다리를 벌리고 칼을 머리 위로 서서히 들어 올린 다음 호통을 친다.

칼을 뽑아라!

나도 서서히 머리 위로 칼을 올려 왼손으로 칼집을 오른 손으로 칼자투를 잡는다. 칼과 칼을 마주치며 한참을 겨루다가 나는 아이의 칼을 맞고 방바닥에 쓰러진다. 허를 좌로 빼고 눈을 하얗게 치뜨고 눈동자를 멈추면, 제 엄마 웃자락을 잡고 삐죽고개로 구경하던 네살바기 성품이가 달려와 내 몸을 흔들며 외친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들의 소란 속에 죽은 듯이 누워 지나 온 하루를 더듬는다. 천길 낙락인 듯 아득하다. 앞뒤 정황이 가물가를 멀어지고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의 목소리만 환청으로 증폭된다. 칼날되어 생활을 파고든다. 속으로 속으로 피가 고이는지 몸통아리 깊은 곳이 뜨겁다. 속 뜨거운, 똑 그 만큼 서러운 내 꿈이며, 사람이여. 결코, 나는 필부를 꿈꾼 적 없어.

(문병학님의 시)

‘어, 저 사람 총례형 아니야?’ 수박을 잘라 먹으며 TV를 보고 있던 나는 순간 정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들어가는 지하철 노조 간부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노조 간부들은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등글게 원을 만들고 굵은 팔뚝을 울리며 ‘단결투쟁가’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 없었다. 눈물이 나리만큼.

극적 협상은 35명의 해고자 중 15명을 복직시키고, 미미한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어졌다. 지하철노동자들의 힘과 단결이 동지들의 일자리를 되찾아 준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도 많은데, 이거 내가 나와도 되는 건가? 우리 지하철 노조원들 덕택에 줄지에 메스컴을 타지 않나. 취재원이 되지 않나……”

붉은 머리띠 대신 헐렁한 남방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김총례 회원(41세·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연신 ‘이거 참 쑥스러워서…’라는 말을 말끝마다 붙인다.

김총례 회원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방송통신대를 졸업할 즈음인 83년. 당시는 학교 교정에서 기타만 쳐도 당장 수위 아저씨가 달려와 ‘여기가 공원인

줄 아느냐’며 쫓아 내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모여 역사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졸업후 84년 김총례 회원은 지하철 공사에 입사한다.

“89년 3.16 파업때 같은 조합원들이 경찰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 가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조합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철 노조원들은 그 때 이후로 끈끈한 동지애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동지를 보며 상부구조가 어떻게 하부구조가 어떻게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정권의 본질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거죠.”

김총례 회원은 지하철 노동조합원들의 얘기를 할 때 눈이 가장 반짝인다.

동지들이 구속되면 즉각 면회조를 짜서 가족이 면회가는 날을 빼고는 매일 면회를 간다는 말을 할 때, 그리고 ‘해고된 동지들의 생활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조합비 외에 따로 돈을 내어 해고자의 월급을 동지들 손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김총례 회원이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다. 87년이후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책에서 선생님들의 고통스럽지만 당당한 삶을 만나게 된 것이다.



편집부

“좌, 우를 떠나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삶 전체를 걸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경이였고 존경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사회에서 아무도 알아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몇 십년씩 지키며 살아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3만원씩 후원회비를 내며 회원이 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원, 아니 1000만원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건 그 분들의 고결한 삶에 비한다면……”

김충례 회원에게 두 개의 굳은 인생의 모범이 있다한다.

‘스스로를 극복하며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게 하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삶과, 85년에 읽고 ‘인생을 좀더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러준 님웨일즈 소설 『아리랑』의 김산, 소설가 유시춘 님이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며 쓴 글 중 한 구절이다.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 남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는. 김남주님의 시에 곡을 붙인 안치환의 ‘자유’라는, 고음이 화살처럼 뾰족하게 가슴을 치는 노랫가사가 잇새로 세어 나온다.

조합일을 하며 김충례 회원은

선생님들을 가끔 생각한다고 한다.

“신라시대나 백제시대에 지은 탑들이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땅 위에 그대로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건 맨 땅위에 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깊이 땅을 파 그 땅을 조금씩 다지고 다지고 한 후 그 위에 탑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선생님들의 삶이 그런 것이겠죠. 아들뻘이 되는 저나 다른 회원들을 대할 때의 그 겸손함은 아마 오랜 감옥생활을 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다지셨기 때문이겠죠. 출소한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 그렇게 오래 감옥을 사셨으면서도, ‘나 잘났다’ 하는 분을 뵈는 적이 없습니다. 못 다한 일, 아직 감옥에 남아 있는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을 말 씀하시죠. 제가 깊이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활동을 하다보면 조금해지고 독단적일 때가 있거든요.”

솔직한 고백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수십년 감옥을 사신 선생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 하며, 그 속에서 선생님들을 배워가는 것. 선생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쭈뼛해지는 손을 내밀어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

협상이 타결되었는데도 김충례 회원은 잠부족 때문인지 얼굴이 꺼칠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잠자는 것’ 인 김충례 회원은 노조일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지금 1학기인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숙제로 전날 3시가 다 되어 잤다한다.

김충례 회원은 대학원에서 한국 사상사를 배운다. 그 중 ‘논어에 나타난 군자의 모습’에 대한 논문을 쓰느라 잠을 못 잤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유학대학원이라니?

“우리나라에는 노동천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천시 경향이 자본가에게 도움 되지만 노동자에게 큰 해악 아니겠습니까? 향후 노동운동에서는 그런 개념을 깨뜨려야 하고요. 언제부터 그런 경향이 생겼는지, 정말 유교에서는 노동을 그렇게 천시했는지를 공부하고 싶어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Marx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연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이걸 쓰지 마세요. 아는 것도 없고, 또 끝까지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미정입니다.”

만학이 부끄러워서인지, 아직 맛만 본 공부를 두고 대가처럼 말하기 쑥스러워서인지 쓰지 말라고 당부하던 김충례 회원이 이것만은 꼭 써달라는 부탁을 한다.

“선생님들로부터 한문 등을 배웠으면 해요. 그 속에서 선생님들을 가까이 하며 인격을 배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장가를 가게되면 선생님들께 반드시 주례를 부탁드릴겁니다.”

내마음이 조금씩 더 자유로와 지는가

임진아(25세·회원)

원래 산 공포증이 있는 나.

단체 생활 공포증도 있다.

그런데 나는 지난달 산행에 이어 이번 달도 두손을 꼭 쥐고 산행에 참가했던 것이다.

산행날 아침까지 나는 매우 초조해하며 비가 오기를 바랬다.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산 공포증이 반반씩 내마음을 드나들었다. 지난달, 5차까지 가는 정열적인 뒷풀이가 인상적이어서 뒷풀이만 참가할까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 결정도 못내린 채 나는 속절없이 수락산 자락을 밟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정말 뜻밖의 일! 힘들지가 않은 것이다.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회원들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속도가 느려 산행기 말고, 나뭇잎들 보며 쉬엄쉬엄 올라갈 수가 있었다.

발만 보며 앞사람 뒤쫓기 바쁘지 않아도 좋았다.

용굴암 아래터에 점심자리를 마련했다. 모두들 푸짐한 음식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맛나게 먹었다.

점심 먹고 한 호흡 쉬는데 큰 바위들 위에 하나 둘 눕기 시작했다.

아침 개미집이 있던 곳이라 구역침범 죄로

온 몸을 기어 다니는 여러 종류의 개미들을 떼기에 바빴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중엔 익숙해져서 아주 작고 예쁜 곤충을 내 팔에다 올려 놓고

곧 돌아온 자기소개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 시간은 재미있고 따뜻하다.

수락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 봉우리가 많고 계곡도 넉넉하고 운치가 있었다.

그 많은 봉우리 중에서 몇군데를 올라갔다. 보이는 경치와 느낌이 다 달랐다.

힘해질수록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다. 나는 도움만 받는 쪽이었지만 부담스럽진 않았다. 단지, 더 튼튼해져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도움을 주는 쪽에 섰던 선배가 그랬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게 세상살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러. 니. 가. 우리들은 친해지고 있었다. 친해져 버렸던 것이다.

그런고로 내 무릎에 힘이 빠져 마구 넘어지고, 더더욱 느릿느릿 산을 내려가

여러 선생님과 여러 회원들을 긴 시간 기다림속에 넣어 버렸어도 조금 밖에,

아주 죄금밖에 미안스럽지 않은 것이다.

수락산의 백미는 좁은 바위벽 사이를 엉덩이와 두발을 차례로 움직이며 건너간 경험이었다.

매우 즐거웠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또 제일 늦게 따라가던 와중에도 하산길 막바지에

우리를 기다리던 맑고 푸른 계곡물에 발을 담구던 일도 인상적이었다.

큰물 피어로 고통받는 복讎 동포에게 따뜻한 동포의 정을

기쁘게 그 물속으로

소연 언니의 “이대로 갈 순 없지!”하는 군세 말에 상희랑 언니랑 나는 물속에 들어가고,
득행 선배는 나뭇꾼이 되어 기다려 주었다. 왜 그런걸 신고 왔냐고
다음엔 꼭 등산화 신으라며 여러 사람들에게 구박받던 나의 스포츠 샌들도 제 세상을 만나
서럽도록 차고, 맑은 물에 빠져 들었다.
의정부에서 뒷풀이는 2차까지만 했다. 짐들이 멀어서 차 시간을 생각해야했다.
뒷풀이 자리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선생님들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대화한다고 해도 막상 무슨 얘길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앉아
밥만 먹고 있어도 그냥 웬지 무조건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왜 그런가 하고 알수는 없었지만
차 시간 때문에 급하게 맥주를 들이킨 후 새빨간 얼굴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의 따뜻함에 비몽사몽간에 지하철 소리 속에서 계속 산을 오르면서
그 따뜻함에 종착역이라고 깨우는 소리에 아차 눈을 뜬 나는
나의 이기심을 생각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긴 발걸음이 행복해졌다.
산행 사람들이 나에게 준 따뜻함이
나의 이기심을 조금씩 덜어주고 내 마음을 조금씩 더 자유롭게 해주는가
하고

노래를 불러봤다.

사랑을 줘 내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으니
사랑을 줘 내가 자꾸 냉정해지는 것 같으니
사랑을 줘

.....

오 그대여 내가 자꾸 추워져
왜냐고 묻지 말고
사랑을 줘 또 그럴거야
사랑을 줘 내발이 시려워져
사랑을 줘 사랑을 줘 사랑을 줘 사랑을 줘
낙엽처럼 지는 내 가슴에
제발
전인권 노래 (사랑을 줘)



“깊은물에 큰 배 뜬다”

박문식(회원 · 21세기 프론티어 대표 · 공인회계사)

1985년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열한해째 감옥에 갇혀 있는 강용주씨의 옥중서간집 (『깊은물에 큰 배 뜬다』에드 피아21)이 출판됐다.

강씨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교도소의 높은 담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편지라는게 불가피하게 ‘노예의 언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더우기 글쓴이가 작가가 아닌 마당에, 이런 글들이 묶여지게 된 까닭부터가 갇힌 이의 자유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글의 내용이나 수준이 문제될 게 없었고 더우기 팔리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은 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갇힌 자가 내지르는 일갈이 아니었나 싶다. 그럼에도 이 책을 받아들고 읽던 나는 단정한 활자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한 인간의 영혼과 그 영혼이 가진 숨결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거북하게 만든다. 게다가 그 감옥살이가 웅당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내기 쉬운 경우가 아니면 더 그렇다. 이 거북함을 감수하고서도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또 한 가지의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 서간집은 스물 둘의 어린 나이로 감옥에 들어가 십여년의 세월을 인간이 만든 추악한 제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가 질러대는 아우성 같은 것이다. 거기에 치밀한 논리가 있을 수 없고, 표현의 원숙함이 담길리 없다. 두고온 어머니, 가족, 친구들에 대한 애절함에 가슴을 쓸어내리다가도 두서없이 튀어나오는 생경한 훈계, 바깥 세상에 대한 분노와 비난은 우리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이 서간집에서 잘 지어져 아름다운 정신의 집을 발견하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안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거북함, 신경쓰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 가슴이 매스꺼리는 체증 같은 것이 이 책을 사이에 두고 한 인간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집요하게 묻는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여기 이렇게 갇혀서 내몰린 짐승에 불과한 나는 이제 비로소 인간의 삶과 자유에 대해 겨자씨만큼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신들, 내몰린 인간들이 지르는 비명소리에도 태연할 수 있는 당신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고 그는 묻는다.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이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당신 편에 설 것이라는 볼테르의 말을 그가 인용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에 낯을 붉힐 수밖에 없다. 그의 물음은 우리에게 잊혀져버린 삶의 진정성을 반추하게 만든다. 갇힌 인간이 갇혀 있음으로 해서 자유의 의미를 곱세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정작 경이로운 것은 그 절박함과 분노 속에서도 그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이다. 그 인고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따뜻함을 잃고 있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길은 험악하지만, 그래서 나를 각박하게 만들지만, 창가에 없어둔 작은 화분 하나에서 봄의 원연함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내 삶이란 얼마나 의미없는 것일까’라고. 훼손된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는 안간힘과 그가 겪어야했을 좌절과 절망,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시켜내고야 마는 생의 집요한 의지를 이 서간집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작은 몸피에 없어진 무거운 짐이 그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산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되작이는 그를 보노라면 황지우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구만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큰물 피해로 고통받는 북녘 동포에게 따뜻한 동포의 정을

김승훈 (여의도 성당 주임신부,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

지난해 여름 북녘 땅에 내린 100년만의 큰비로 북녘국토의 95%, 1백45개의 시, 군이 큰물 피해를 당했고, 5백20만명이 수해를 입었으며 그 가운데 10만 가구 약 50만명이 집을 잃었다고 보도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옛부터 불은 흔적이라도 남기지 만 물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 피해정도를 비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녘산하의 이 엄청난 자연재해는 온 세계의 큰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유엔 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 아동기금', '식량농업기구', '국제적십자사'도 피해지역을 찾아 큰물이 휩쓸고 간 폐허와 집 잃고 식량이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참상을 낱알이 보고하였습니다.

1백19만 5천 ha의 경작지가 큰물로 떠내려갔고 그 가운데 상당지역은 앞으로 7년동안 경작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유일한 곡창지대인 연백평야, 재령평야가 황량한 모래톱으로 변했고 집과 학교와 도로와 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도 KBS가 방영한 '북한 수해피해 실상'에서 생생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이같은 큰물 피해를 돕기 위해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는 모든 나라들에 식량지원 등 구호를 요청하였고 또 모금된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직접 싣고 가 피해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간구호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큰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누구보다 먼저 굶주리는 동포에게 쌀을 갖고 달려가야할(같은 동포이기)에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가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 구호마저 제동을 걸곤 했습니다. 끝내는 국제여론에 밀려 300만달러 규모의 아동용 혼합분말과 국산 분유를 보내기로 했지만 북녘동포가 절실히 필요한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 등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금을 보냈

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며 사법처리하겠다는 웅졸함마저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당국은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단일화를 고집하고 구호품에서 쌀 등 곡물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큰 재해를 입어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같은 동포에게 할 일이 아닌 것은 물론이며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말에 죽은 자를 두고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산자를 옆에 두고 혼자만 먹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피를 나눈 한겨레이고 언젠가 다시 만나 하나가 될 민족입니다. 84년 남쪽이 큰 수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쌀과 옷과 세멘트를 싣고 북쪽에서 왔듯이 우리도 동포의 정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의 정성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북녘동포에게 겨레의 정을 보냅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지난해 엄청난 큰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녘동포들을 돕기 위해 식량보내기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양심수의 석방과 후원을 주된 목표로 하지만 이웃의 이쁨을 나눈다는 정신과 더구나 피를 나눈 동포의 고통을 덜고 지금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수해돕기 운동'에 함께하는 뜻으로 7,8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모금을 하여 전국단위 모금단체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회원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뜻은 있었지만 아직 성금을 못했던 회원께서는 후원회 단위의 모금에 함께 하시어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도움을 주고 또다른 양심운동의 뜻으로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간 : 1996. 7 - 8월 (두달간)

● 보내실 곳 :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이런일이 있었어요

- 1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민간 단체 보고서 제출에 관한 문제, 민가협 회원 종합검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 술한 옥고 등 고난을 당하셨던 원로 유한중 선생님의 영결식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 - 한국 통신, 지하철 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원 3만여명이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다.
- 3 - 12.12, 5.18 11차 공판 반대심문에서 전두환 피고인이 5.17 계엄 확대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 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을 방문해 농성회원들과 구속자 가족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 4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되려면 임의동행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등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6 - 의경이 불심검문을 하자 근거를 요구하며 주민등록증 제출을 거부한 홍진표(자유평화통일 민족회의 조직국장)씨가 의경들에게 서울역 광장에 있는 '자유의 집(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서울역 분소)로 끌려가 집단구타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치 7일의 상처를 입은 홍씨는 자신을 구타하고 도망간 경찰들을 추적해서 불법감금, 폭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에 의하면 경찰관 등 검문하는 자는 신분, 계급, 동행목적 등을 먼저 밝혀야 하고 검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이 수상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하는 자에 한하게 되어있다.)
- 7 - 양심수후원회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에 의뢰한 출소 장기수 구강검진을 서울과 지방 건치에서 나누어 하겠다는 고마운 회신이 왔습니다.
- 성남 중부경찰서 '성남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양혜우씨를 내팔인 노동자 연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한국교회인권센터(소장 김경남 목사)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국내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등의 대책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 8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주관:서울연합, 서충련)주최 '민의를국 규탄과 민주개혁을 위한 6월 항쟁 계승대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렸습니다.
- 부산지법 형사 항소1부는 부산수산대 전 총학생회장 주우열 씨를 북한학생과 팩시밀리로 통신한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10 - 6월 민주항쟁 9주년 기념의 밤 행사가 기독교 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 11 - 외국인 노동자 17명은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12 - 양심수후원회 6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5월 사업보고, 재정보고와 6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 13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성 목사님의 어머니 안월순 님,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신희주(전남대)군, 박재열군(성균관대)이 이적표현물 소지로 구속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명원창 군의 사례발표에 이어 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영준 씨

의 부인 임혜연 씨가 사례발표를 하셨습니다.

- 민주노총 등 30개 단체가 기독교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노동상담소 탄압에 대한 공동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14 - 『후원회 소식』 56호를 발송했습니다.

- 노량진 경찰서는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씨를 음반 및 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습니다. 푸른영상은 독립기록영화를 제작하는 동호인 모임으로 노동, 장기수, 환경, 여성, 사회복지 등에 관한 소외된 곳에 대한 기록영화를 비영리로 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 서울지검 공안2부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보석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 - 대법원 형사2부는 한국외국어대 박창희 교수의 상고를 기각, 3년6월을 확정했습니다.

16 -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 씨가 불구속으로 풀려나왔습니다.

17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 한상범)가 불교인권상 수상식을 가졌습니다.

19 - 민가협 회원들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이혜정씨 등 양심수를 면회했습니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공노대, 전해투, 외국인노동자, PCS 대책위등 격려방문을 다녀왔습니다.

20 - 민가협 목조집회가 있었습니다.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씨, 지하철 노조 자료실 간사로 일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상훈 씨의 친구 김명수 씨, 인천대 동아리연합 회장이 나와 정민주, 이혜정 학생 재판방 청하러 갔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사례발표를 했고, 노래패 꽃다지가 함께 했습니다.

21 - 『후원회 소식』 57호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 4월혁명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 서울지법 형사9단독 심리에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국장)씨에게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2 - 한총련 주최, 민가협 등 여러단체 후원으로 '통일인사, 통일 희망새 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이 건국대에서 있었습니다.

23 -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36명이 함께하여 당고개 역에서 떠나 수락산 주봉, 내원암을 거쳐 동쪽 계곡의 빼어난 절경을 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 ILO(국제노동기구) 집행이사회는 한국정부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 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등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4 - 전 인민군 전쟁포로로 오랜 수감생활을 했던 김인서, 김영태, 함세환 노인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요세아야타 라노에게 복녀 고향으로 송환을 탄원했습니다.

25 -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무기를 선고받고 수감중인 손병선 님과 민애전 사건 이경섭 님을 면회했습니다.

- 26 - 민가협 회원들이 범민련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천재 님 등 양심수를 면회하고 낙성대를 방문했습니다.
- 서울지검 형사2부, 격주간지 '시시뉴스' 발행인 강신한씨를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인권 탄압' 이란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 27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홍진표씨 불심검문 중 집단폭행 사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간사 진근화씨, 이경훈 군(인하대) 어머니 오인숙씨 등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교도소에 「말」 7월호를 보냈습니다.
- 28 - 5년 이상 장기양심수 95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김해성 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남검찰청 앞에서 기도회를 갖던 성남 주민교회와 산자교회 신도 400여명에게 경찰이 들이닥쳐 기도회를 강제해산하고 교회신도 3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된 3명은 구류 3일을 선고받았습니다.
- 29 - 서울고법 형사 1부, 사노맹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사노맹의 정조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에서 무죄판결 받았던 박정숙씨에 대해 "가입절차가 없었다해도 활동했다면 가입으로 봐야한다"며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 30 - 대구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1돌을 맞아 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올 7월입니다.

울창한 숲과 시원한 물, 우람한 바위 도봉산 주봉 계곡에서 더위를 잊읍시다.

연 제 : 1996년 7월 21일(일)

어디로 : 도봉산

어디서 : 도봉산 입구 안내판 있는 곳

(19번, 2번 좌석 버스 종점. 도봉산역에서 내려 10분거리)

갖출 것 : 회비 3,000원. 맛있는 도시락

● 국가보안법 위반

- 5 이호성(민정련 광주지부)
- 7 범민련 강순정(남측본부 서울시연합 부의장)
최진수(간사)
- 11 송기수(광주대 96년 2월 신방 졸업) : 대학재학시절 사회대 교지내용
- 15 경희대 이상훈(지하철 노조 자료실 간사) : 서울지하철 교섭기간 중 95년 경희대 총학 사무국장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삼아 교섭기간 중에 전격 구속해서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이상훈 씨가 노조에 깊이 관여해 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보도를 함
- 16 김대훈(충북총련 조통위장, 교원대 총학생회장)
- 17 강길용(연세대 법대 학생회장) 이적표현물 소지, 시위 주도
박치현(고려대 법대졸) 반미불패
권택홍(영남대 총학생회장) : 범청학련 중앙위원
- 18 이원구(한양대 95년 총학생회장, 한총련 조통위원장) : 정민주, 이해정 범청학련 대표 파견 혐의
김영만(민정련 광주지부)
- 21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여상수(군) 김금호(군) 양내원 유일환 박종근 이수진(이상 전주대 졸업생)
- 22 김건수(경인총련 의장, 경희대)
- 25 장대업(서강대 부총학생회장) : 시위주도, 학생수첩에 '공산당선언' 실은 것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 박형대(전남대) 김성희(조선대) 서재성(조선대) 조동주(목포대) 서영환(전남대) 홍현수(동신대) : 모두 현역군인. 학교 재학시절 '오월대', '녹두대' 등 각 대학의 집회때마다 시위대열 보호를 위해 활동한 전력을 문제삼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
- 28 유국무(관동대 96년 동아리연합회장) : 범청학련 서신 교류
- 30 '남총련 자주대오' 사건: 전남대 94년도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간부를 지냈던 13명을 동시에 연행, 이 가운데 1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 그러나 전남대 총학생회측과 구속된 피의자들은 이 사건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선출된 합법조직인 총학생회를 탄압

하기 위한 조작수사라 규탄하고 2년전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억지로 구속한 것은 '전거를 앞두고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미라 서순태(94 총예협 총무기획부장) 박보석(94 총학 총무부장) 강민구(94 총학 섭외부장) 김소연(94 총여 부회장) 이상민(94 총학 기획부장) 김세희(94 총학 문예국장) 정지문(94 동아리 연사부장) 박미승(94 농과대 문예부장) 양병일(94 총학 학술부장) 백몽인(94 인문대 회장) 강인철(94 사회대 회장)

● 집회 및 시위 관련

- 3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김해성(산자교회 목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 5 김영삼(단국대, 학내집회) 구분승(단국대, 한총련 단식단) 양혜우(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특공
- 8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중대회 참석
홍주영 안인화 이동선(이상 서강대) 이우성(한양대) 임성호(고려대) 국동석(동국대)
- 13 시내 선전전을 위해 교문을 나서던 전남대 학생들을 막아 나선 전경이 대열 후미를 기습해서 연행, 구속
최안나(전남대 농생94) 김경철(임산가공95) 김성문(수의대95) 백경호(경제96) 조용현(철학95)
- 14 학특위 집회 참가, 화염병 사용 등 법률위반혐의 : 김대형 김기훈(이상 부산동의대) 남인수(동아대)
- 15 정민주 이해정 재판일에 재판을 기다리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집회를 하던중 전경이 들이닥쳐 56명 전원 연행, 이 가운데 4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 이경훈(인하대) 이광호 임현준 이소원(이상 인천대)
목총협, 신한국당 항의방문중 연행 8명구속 : 김정훈(목포대95) 김현진(목대96) 홍 훈(목대96) 양승재(목대96) 김연배(목대95) 청찬형(목대96) 정준오(목대95) 김덕진(목대95)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중대회 참석 : 김희진(여수수대96) 백성민(순천공전95) 백성재(순천공전95)

- 18 유혜숙(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20 백진옥(순천대96)
 22 오동근(호남대94)
 23 조선대 6.14 시위참가 협의 : 박광욱(조선대 무역95) 윤준혁(조대무역95) 곽현모(조대무역95) 박찬배(조대 무역91)
 27 김정호(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부산동아대 총학생회장)

- 김종민(부산동아대) : 부경총련 집회 참가
 29 장영태(서강대 총학 집행위원장) : 시위주도

● 3자개입

- 19 민주노총 금속연맹 구미지부 조명래(사무국장) : 3자개입- 한국합섬 관련
 구미 연대회의의 사무차장 김성현 : 3자개입

회원소식

- 1일, 이 산 회원이 태어난지 1돌을 맞아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돌잔치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세요!
- 6일, 한지훈 회원(우리말 우리글 살리는 모임), 윤팔병 님(님마공동체)이 모임의 여러회원들이 출소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과천 대공원에서 손수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동물원 구경 등 재미있고 뜻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단국대 법사회학회 구본승 회원(단국대 4년 재학중)이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선자금공개'와 '부정당선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 옴시롱감시롱 모임은 15, 16일에 걸쳐 제 19차 역사기행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허균생가 터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 만덕사 선재회 회원(대표 감경호)들이 양심수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큰 성금 감사드립니다.
-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 목회자님이 양심수후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2일, 우리교회 권동호 목사님과 여러분이 낙성대 만남의 집과 봉천동 만남의 집에 전기안마 의자를 기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23일, 황건 4월혁명연구소 전 소장님과 동대문교회 여러분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하시고 큰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4일, 전주 교백교회(담임목사 한상렬) 설립 10주년 기념 '양심수 가족과 함께 아픔과 희망을' 행사가 교백교회에서 이 교회 성도와 양심수 가족, 전주시 여러 교역자들과 인권단체, 사회단체 일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28일,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현암사 펴냄. 손석희, 이경영 외 14명 씀) 출판기념모임이 서울대 동창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책의 저자들은 인세중 일부를 민가협과 한겨레 통일재단에 증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29일, 민애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온 정은주, 박상은 님이 화축을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 김지자 회원(김지영 운영위원 언니)이 신촌 이화여대 앞(김지영 내과 지하)에 카페 '피어라 들꽃'을 열었습니다. 회원들이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화 707-1986)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안명자(포항시 죽도2동) 정유경(동대문구 용두2동)
 조은영(금천구 시흥본동) 김동찬 조정애(서초구 방배동)
 서재국(서대문구 대신동) 이경희(부산시 초량3동)
 김형근(김천시 성내동) 임경옥(인천시 청천1동)
 안효충(경북 봉화군) 정미숙(성동구 행당동)
 이은자(해남군 해남읍) 김미영(대구시 평리5동)

- 이신정(대구시 삼덕2가) 안지연(광주시 백운동)
 김경태(양산시 웅상읍) 이귀순 노정문(인천시 일신동)
 김은하(부천시 도당동) 정영진(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정희(영덕군 영해면) 윤지연(마포구 서교동)
 김현정(광진구 중곡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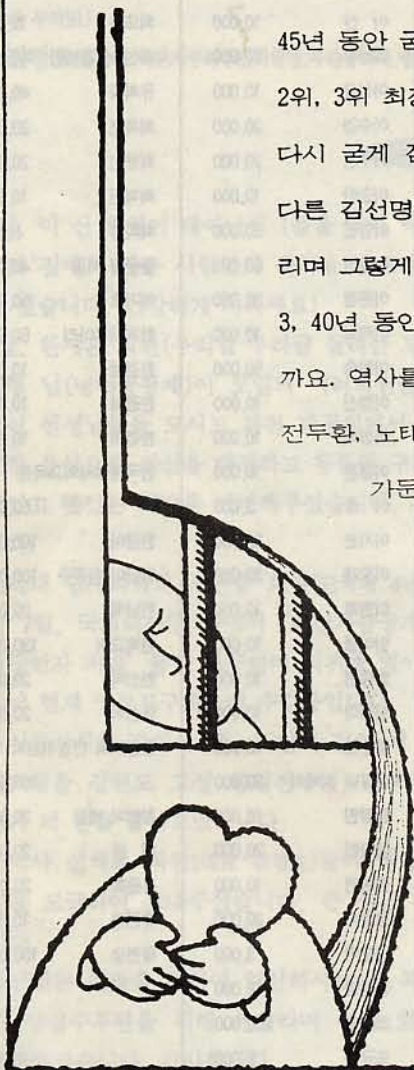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을 아낀 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